

“총고용 보장 · 미래준비 2020년 투쟁 조직한다”

금속노조 투쟁 승리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열어... “임금동결 반대, 산업변화 · 고용문제 집중할 때”

전국의 금속노조 지회장들이 코로나 19로 변화한 정세에 맞춰 총고용 보장을 당면 목표로 내걸고 투쟁 조직화 태세를 갖추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가 6월 17일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호텔에서 ‘2020년 투쟁 승리를 위한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해고금지, 구조조정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위기 대응협약 쟁취’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를 모았다.

노조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 국면에 들자 자본이 인적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임금동결과 삭감, 복지축소, 무급휴직 등을 강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코로나 19 사태로 변화한 정세에 맞춰 투쟁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조직 태세를 정비하기 위해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지회장 결의대회에서 직접 금속노조 2020년 교섭과 투쟁 방안을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당면 목표로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을 내걸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총고용 보장이라



는 목표를 위해 ▲자본의 구조조정 양상 파악과 대책 마련 ▲현장에서 중앙까지 전 조직 대응 태세 구축 ▲업종별 원-포인트 협상과 지자체 별 협상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재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후속 논의 기구로 ‘금속산업(업종별)협의체 · 구조조정 대책 특별위원회’와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와 한국지엠 자본이 참여하는 ‘자동차업종 협의체’도 제안하기로 했다.

금속산업(업종별)협의체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을 중심으로 한 금속산업과 제조업 전반에 걸친 발전 전망과 산업4.0시대 총고용 보장 방안을 의제로 삼는다.

구조조정 대책 특별위원회는 ▲부품사와 하청업체 재정 지원 방안 ▲노사 공동으로 구조조정 사업장 부실 원인 파악을 위한 실사 ▲총고용 유지와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주요 의제로 한다.

“임금동결 주장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노조는 2020년 임단협 교섭에서 비상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위기 대응협약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지난 4월 20일 133차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 ‘기본급 월 120,304원 인상안’을 유지한다. 노조는 ‘위기 대응협약’ 체결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금속산업(업종별)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위기 대응협약은 ‘고용 안전망 구축’과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구성한다.

노조는 6월 16일 8차 비상투쟁본부회의에서 7월 중 · 하순과 8월 하순 지부 집단교섭 승리 쟁취를 위한 지부 · 권역별 파업 · 총력투쟁을 결

정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사업장 투쟁 쟁점화를 위한 집중 투쟁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벌인다.

노조는 완성차 3사 기업지부와 함께 18만 공동투쟁·승리 쟁취를 위한 집중 선전전을 8월에 전개할 계획이다. 노조는 노조과외법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쟁의권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18만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비상투본회의에서 결의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동조합 활동하던 자들의 임금동결 제안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임금동결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지금 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어 “급한 대로 당장 사업장 교섭에 소수노조에서 한 명의 교섭위원이라도 들어가도록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금속노조는 강제 창구단일화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결의마당에서 구조조정과 복수노조,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싸우는 지회장들의 투쟁 보고와 결의가 이어졌다.

“금속노조가 상황을 주도하자”

박재우 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장은 “울산공장의 베트남 이전 저지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달라

고 조합원이 사준 신발”이라며 하얀 운동화를 들어 보였다.

박재우 지회장은 “영안모자그룹 백성학 회장은 부산공장 땅을 팔아 1,171억 원을 벌었다. 울산시에 9천 5백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해 온갖 지원을 받아 챙겼다. 코로나 19를 핑계로 울산 공장을 폐쇄한다”라고 비판했다.

박재우 지회장은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백성학은 손 떼라, 차라리 부도를 내라, 매각하라’라고 요구한다”라며 “영안 자본에 같이 죽자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하고 있다”라고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임경수 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효림산업분회장은 복수노조는 해당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투쟁해야 할 노조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경수 분회장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소수 민주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은커녕 최소한의 권리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운다”라고 보고했다.

임경수 분회장은 “복수노조를 이용한 신규노조 탄압으로 금속노조 조직력이 일부 상처를 입었다”라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에 모든 조합



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을숙 노조 전북지부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장은 “상황이 노동자를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금속노조가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을숙 지회장은 “현장에서 조합원과 동고동락하며 투쟁을 조직하고,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이 금속노조의 전략이어야 한다”라며 금속노동자의 활동 지침을 제안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2020년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상징의식을 앞두고 “지금 이 위기라고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금속노조의 명운을 건 한 판 싸움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 끝까지 투쟁하자”라며 지회장들에게 투쟁 조직을 독려했다.

조선산업은 잔칫상? 조선소 노동자는 줄초상

조선노연, 정부에 산업·업종 교섭 요구 ... “휴업, 해고, 산재 사망 ... 더는 안돼”

전국의 조선소 노동자 대표자들이 “더는 자르지 마라, 더는 죽이지 마라” 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아래 조선노연)가 6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충고용 보장, 조선산업 정책 전환,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중대 재해에 노출된 조선소 노동현실을 알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선노연 공동의장인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선업은 수주가 늘어 살아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이에 따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최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소 3사가 카타르로부터 LNG선 100척을 수주했다. 정부와 조선업계는 추가 수주를 전망하고 있다.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카타르발 대규모 수주로 정부는 연일 자축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느끼는 조선소 고용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고 전했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아예 손 놓고 있는 중형조선소 고용은 최악의 상황이다” 라며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은 2년째 무급휴직 상태” 라고 꼬집었다.

STX조선해양은 이미 2년 동안 무급휴직을 견딘 노동자들에게 무급휴



직 연장을 통보했다. 이장섭 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으로 오랫동안 힘들었다” 라며 “이 고통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STX 대주주 산업은행, 무급휴직에 구조조정까지”

이장섭 STX조선지회장은 “대주주이자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은 무급휴직 연장에 이어 고정비용 삭감을 빌미로 구조조정을 시도 중” 이라며 “정부는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고 중형조선소 상황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선노연은 한국 조선업의 고질병폐인 잦은 산재 사고와 중대 재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조선노연 공동의장인 조경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아침에 출근했던 노동자가 저녁에 차가운 영안실에서 발견된다” 라며 “숨방망이 처벌 탓에 자본은 사람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생산제일주의와 이윤 추구를

계속 앞세운다” 라고 성토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원청은 6월 5일 ‘신 안전문화 선포식’ 을 열었다. 6월 8일 대조립 5부 권상 블록 회전사고, 9일 가공소조립 5부 크레인 충돌사고·해양야드 트레일 운반물 낙하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지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사측 선언이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조경근 지부장은 “중대 재해 사망사고 추모집회가 끝나고 돌아서면 또 누군가 일하다 숨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라며 “이 비극을 멈추려면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일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경근 지부장은 “조선소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받아들여 문재인 정부가 중대 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해결에 하루빨리 나서 달라” 라고 요구했다.

조선노연은 이날 청와대에 산업·업종 교섭과 해고 반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의 요구를 전달했다. 산업·업종 교섭 개최 요구는 정부와 조선소 노동자 대표들이 직접 만나 조선산업 발전방안과 조선소 노동문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선노연은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조선산업 정책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을 이끌고 서울에 올라오겠다” 라고 경고했다.